" 에클레시아 : 교회란 무엇인가? "

■ 이종윤 원로목사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Ekklesia)라 한다. 이 단어는 헬라적 배경과 히브리적 배경을 갖고 있다. 먼저 헬라적 배경에 의하면 백성의 총회(Assembly of People)를 소집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그 백성은 그들의 시민권을 소지한 백성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의 결의는 국가의 법으로 확정되었고, 그들의 권위는 모든 결정과 목적에 영향을 미쳤다. 시장을 선출하고 해임하고 도시의 정책 방향을 정하였다. 전쟁을 선포하거나 평화를 만들기도 하고 조약을 체결하거나 동맹을 맺기도 한다. 장군을 선출하거나 장교를 선임했다.

이들의 모든 총회는 기도와 제사로 시작했다. 그리고 매우 민주적으로 시행했다. 평등과 자유의 두 개념을 근간으로 삼았다. 모든 이들이 동등한 권리와 동일한 의무를 가졌다. 희랍 사회에서 ekklesia는 시민의 총회 소집을 의미한다. 로마 세계에서는 ekklesia라는 말을 번역하지도 않았다.

헬라인과 로마인에게 이 단어는 총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총회요, 하나님이 소집하는, 하나님이 소집자다.

Ekklesia의 히브리적 배경은 70인역 성경에서 카할(qahal)이라는 소집한다(to summon)는 말을 번역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 또는 백성의 회중을 뜻한다. 70인역 성경에서 70회 이상 나온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위해 듣고 행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부르시는 것을 말한다. 회중은 백성의 무리다. 카할이나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함께 부르시는 것을 말한다. 카할이나 에클레시아는 함께 부름받은 백성의 모임이다. 헬라어나 히브리어 두 단어는 모두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한다. 히브리어 에다(eddaah)는 회중이 모이든 아니든 다만 회중을 뜻하지만 카할(qahal)은 실제로 모인 것을 의미한다.

본래 ekklesia는 세상으로부터 끌어낸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배타적인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의 집으로부터 나오도록 소집된 사람들의 모임을 뜻한다. 소집된 사람들은 선택된 소수가 아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에 의하여 소집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ekklesia는 그들이 함께 모이도록 선택받았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모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사상이나 의견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총회다.

신약에서 ekklesia는 세 가지로 사용된다. ① 우주적 교회 ② 지역 교회 ③ 실제적으로 특정 장소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신자들의 총회다. 바울은 개별적 회중을 교회라 불렀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한다.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 것으로 보아 개별적인 교회보다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다. 교회는 우주적 전체다. 우리는 작은 회중의 회원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의 회원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란 성도들의 모임이지 빌딩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그들 마음을 바친 성도들의 모임을 뜻한다. 하나님의 교회란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대표가 되시는 머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따라야만 교회는 살고 움직인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심부름을 하고 말을 한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이 가정에서 모였다. 가정교회라 불렀다. 모든 가정이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주님이 성찬식의 주인 되시듯 식탁의 주인이 되시고 더불어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

-한국장로신문 [제 1326호] 2012년 6월 30일 발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방역지침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 확산으로 여전히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 이번 주에도 교회에서의 4부 예배 형태를 온라인 예배와 함께 병행합니다.

교회학교는 이전처럼 부서교역자의 동영상 설교 등 SNS 예배자료를 활용한 가정예배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전처럼 실시간 예배 시작 5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여 동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처럼 1부와 3부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접속방법은 이전처럼 아래 기재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현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또, 린롬, 수린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제30권 제20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2020년 5월 17일

천국시민 양성 · 만민에게 전도 · 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 울 교 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Tel.558-1106 / Fax.558-210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

" 사람보다 지혜롭고 강한 하나님! "

■ 고전 1:26-31

세상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두 부류는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만 굳이 차이를 둔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은 보편적 그룹에 속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군들은 특수한 그룹에 속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쓰십니다. 심지어 악인도 적당한 때에 쓰시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잠 16:4).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시는 일군이라는 측면에서는 특수한 그룹에 속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신에서 제시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1. 사람보다 지혜롭고 강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와 용맹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세상은 학문이 뛰어난 사람, 재주가 뛰어난 사람, 가문이 출중한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와 정반대로 세상의 미련한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 있는 자들을 폐하십니다.(27-28절)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층 계급 사람들이 더 많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귀한 신분의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빈부격차나 불평등한 줄 서기 등은 그 당시가 훨씬 더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도는 사람들의 지혜가 빚어내고 있는 체계나 조직 그리고 사회의 모든 움직임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지혜는 그와 같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높고 귀한 자들로, 부요한 자들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2. 나이, 출신 및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2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천한 것들은 하찮은 신분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한 '없는 것들'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의미하는 말인데 헬라 사람들 사고에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찮고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경멸의 대상들, 입에 담지도 못하는 존재들을 택하여 쓰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고귀하다고 뻐기고 으스대는 인간들을 가까이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굳게 신뢰하고 사람들의 선발 기준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가난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자라고 으스대지 마십시오. 무지해도 기회가 있습니다. 재능이 없어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26절) 우리 중에 최고학부를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며 출중한 외모와 재주를 지닌 자들이 누가 있으며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더러 사용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을 선발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군으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하고 지나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발굴되는 위대한 간증들이 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잘난 사람은 다 뻐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없고, 지혜 없고, 천한 존재인 자신을 발탁하여 사용해 주면 그런 자들은 주인에게 정말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인의 은덕을 잊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입니다.

맺는 말

세상은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세상 방식대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면, 그 과정은 혹 욕먹거나 조롱의 대상이 될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며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높임을 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진짜 지혜요, 진짜 힘입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지혜요 능력입니다.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Ⅰ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이계홍 장로
Ⅱ	오전11시20분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Ⅲ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최광성 장로
Ⅳ	오후 4시	서명철 목사	서명철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00:1-3···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10(시 16)···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맡 은 이
찬 송 Hymn ·····8(9)·····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전 1:26-31···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주안에서 자랑하라!"···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 ·····370(455)···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장석남 목사

묵 도 ····· 다 함 께
성 시 ····· 벧후 3:12-13 ····· 인 도 자
찬 송 ····· 314(511) ····· 다 함 께
기 도 ····· 가 족 중
성 경 ····· 막 8:22-26 ····· 인 도 자
설 교 ··· "예수 만나 눈뜬 사람" ··· 인터넷 영상
찬 송 ····· 310 (410) ····· 다 함 께
주기도 ····· 다 함 께

수요예배

(개 인 기 도)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 서명철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Ⅰ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Ⅱ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Ⅲ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Ⅳ부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전 1:31)		
수요Ⅰ부								
수요Ⅱ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이번주 심방 일정
    1-6, 7-1~2, 11-4, 13-13, 14-3~4다락방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새벽기도
1,403명	265명	1,668명	1,984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5/10)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5월10일	헌 금	36,069,170	
	선 교 비		600,000
	행 사 비		12,000
	출 판 비		210,000
	복리후생비		123,500
	통 신 비		1,057,410
	수도광열비		4,540
	차량유지비		236,000
	사무용품비		13,600
	소모품비		76,290
	수선유지비		297,000
	식당운영비		249,830
	합 계	36,069,170	2,880,17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